## “걷고 쉼, 힐링으로 통일 기원”

### 불교중흥실천협, 마가 스님과 걷기 명상 산책

“한걸음 한걸음에 쉼과 평화를….”

불교중흥실천협의회(의장 안국)는 6월 3일 ‘마가 스님과 함께하는 명상힐링 산책-통일 기원 회동동 수원지 둘레길 걷기’를 회동동 수원지 일대에서 진행했다.〈사진〉



명상힐링 산책에는 의장 안국 스님을 비롯해 마가 스님과 부산 및 경남 불자 300여 명이 참석해 수원지 둘레길 약 5km를 함께 걷고 통일을 기원했다. 이어 걷기 명상 후 시 낭송, 축가 등이 진행됐으며 마가 스님 법문으로 마무리됐다.

마가 스님은 “걷기 명상의 목적은 지금 이 순간 깨어있기를 위함”이라며 “프랑스 플럼빌리지에서는 ‘입가엔 미소, 마음엔 평화’란 모토로 힐링 걷기 명상을 진행 중이다. 지금 이 순간 집중하면 행복으로 자연스럽게 입가에는 미소가 지어지고 마음에 참 평화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의장 안국 스님은 “창립 1주년을 맞아 명상 지도자인 마가 스님을 초청해 소중한 시간을 열게 됐다”며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명상을 배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불교중흥회는 지난해 창립법회를 봉행하고 참선대법회 및 대학생 포교 후원 등 전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정토선 수행으로 중생 제도를”

### 대한불교정토선종, 관정대사 11주기 다례재

경남 고성군 상리면에 자리한 대한불교정토선종(총무원장 등정)은 6월 3일 관정대사 11주기 다례재 및 제8회 보리수 축제를 서방사에서 봉행했다.〈사진〉



다례재는 삼귀의례를 시작으로 관정대사 행장 소개, 격려사, 추모사, 법어, 정토선 염불정근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종정 굉하 정암 스님을 비롯해 총무원장 등정 스님, 천은사 은선 스님, 옥천사 지성 스님, 고성사암연합회 원각 스님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했다.

이날 종정 정암 스님은 “나고 죽고 가고 오는 것 모두가 고통이로구나”라는 원효대사의 법문을 인용한 뒤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극한 정성으로 수행해야 한다. 하루에 열 번만이라도 나무아미타불을 염불한다면 극락에 갈 수 있다고 했으니 정토선 수행법을 실천 해 일체 중생이 극락왕생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총무원장 등정 스님은 “정토(염불)와 선을 함께 닦는 선정쌍수 수행법으로 모든 사람이 참 빛이 되고, 이 땅의 중생을 제도하는 거룩한 빛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관정대사는 중국 근대 3대 고승 중 한 명으로 꼽히며 허운화상으로부터 조동종 48대 전법제자로 부촉됐다.

청운 경남남부지사장

## 생명가치 일깨운 청소년 백일장

(사)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원범 · 이하 부산생명나눔)는 6월 2일 부산 송상현광장 선큰광장에서 부산 지역 내 중 ·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제11회 생명나눔 시 · 산문 백일장’을 개최했다.

백일장에는 경남여자중학교, 광안중학교, 해동 중 · 고등학교 등 22개 학교에서 청소년 100여 명이 참여했다. 심사기준은 정서적 문학 표현력과 독창성, 내용구성 및 언어구사력이며, 시상식은 8일 오후 5시 부산 동구 수정동 여래사에서 열렸다.

박동범 부산생명나눔 사무국장은 “청소년들에게 생명의 존엄성을 일깨우고자 행사를 주최했다”며 “앞으로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시민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부처님도 외국인, ‘불제자’로 한마음

### 6월 3일, 영남서 외국인 근로자 위한 행사 열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인도네시아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 묵신 씨는 어려운 가정 형편에 두 자녀를 키우고 있다. 결혼식도 올리지 못하고 아내와 7년째 살고 있다. 행복한 가정생활을 꿈꾸는 그이지만 아내만 보면 미안한 마음이 앞선다.

외국인 이주 노동자를 비롯해 다문화 가정 등 한국사회 국제화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이어져왔다. 하지만 불교계는 다문화 포교 활동에서 비교적 저조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런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의 환경 개선과 행복한 가정을 위한 맞춤식 포교가 펼쳐져 눈길을 끈다.

사단법인 꿈을이루는사람들(대표 진오)은 6월 3일 구미 마하이주민센터에서 이주노동자 부부 5쌍을 위한 합동결혼식을 주최했다. 스리랑카, 베트남, 캄보디아 등에서 온 이주노동자 10명의 합동결혼식을 축하하며 신혼여행 교통지원 및 가전제품, 결혼 메이크업 후원 등 불자와 여러 신행단체의 나눔도 이어졌다.

사단법인 꿈을이루는사람들은 지난 2000년 노숙인과 이주노동자 지원사업을 위한 구미 보현의집을 설립했다. 이후 외국인노동자상담지원센터 개소,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부처님오신날 행사, 이주민 한마음체육대회 등을 개최하며 후원 및 보호 사업을 펼치고 있다. 현재 이주여성보호시설을 운영하며 가정폭력 피해를 당한 이주여성을 보호하고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날 진오 스님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서로 만나 동거 후 아기가 생겨도 헤어지는 경우가 많다. 태어난 아기는 결국 보호 받지 못한 채 버려지거나 스리랑카 혹은 미얀마 등 여러 나라로 떠나가는 일이 종종 있다”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서로를 아껴주는 삶을 기원하며 결혼식을 진행하게 됐다”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가계 어려운 이들 위한**
**5쌍 합동결혼식 지원과**
**한국인 친목 도모 돕는**
**축구단 창단식까지 열려**

이뿐만 아니라 부산서는 외국인 불자 노동자와 한국 불자 및 스님 간의 친목 인연을 이어주는 행사도 열렸다.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회장 유진상)는 같은 날 부산 금정중학교 운동장에서 ‘외국인근로자 축구단 창단식 및 후원금전달식’을 개최했다.




사단법인 꿈을이루는사람들이 6월 3일 구미 마하이주민센터에서 개최한 이주노동자 합동결혼식.

한국 이주노동자 대부분은 스리랑카 및 네팔 등 불교국가에서 온 불자이지만 한국에서는 쉽게 불교를 접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찰을 방문해도 외국인 불자를 위한 법회는 찾아보기 어렵고, 인적 네트워크도 없어 꾸준한 수행은 생각조차 못한다.

이번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축구단 창단식은 한국 불자와 외국인 불자간의 친목을 도모해 앞으로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를 돕는 소통창구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미얀마 외국인 노동자 와이얀표 씨는 “지하철이나 공공장소에서 차별을 당할 때는 마음이 아팠다”며 “축구단 창단을 기회 삼아 좋은 인연을 맺기를 기대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창단식에는 축구사랑 회장 하림 스님, 대한불교청년회 김성권 중앙회장을 비롯해 미얀마 및 네팔 외국인근로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앞으로 축구단은 매월 첫째 주 일요일마다 금정중학교에서 한국인 불자 청년들과 친선경기를 연다.

류상영 외국인근로자 축구단 초대단장은 “가족들과 떨어져 몇 년간 일하다 보면 외롭고 의지해야 할 곳이 많이 필요할 것”이라며 “늦었지만 불교 인연을 통해 서로 의지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유진상 대불청 부산지구 회장은 “이웃종교 활동에 마음 뺏기지 말고 불교국가에서 온 외국인 친구들을 가족으로 품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도 갖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청정지역에 양돈축사 웬 말”

### 선운사 · 소요사, 부안면 양돈축사 건립 반대 시위

조계종 제24교구 선운사(주지 경우)와 태고종 소요사(주지 문해)가 고창군 부안면 창래마을에 추진되는 양돈축사 건립에 반대의사를 천명하고 나섰다.

선운사 불학승가대학원 강주 재연 스님과 학장 환성 스님, 소요사 주지 문해 스님, 선운사 포교국장 대일 스님과 학인스님 등 지역 스님들은 6월 1일 전주지법 행정소송 담당 재판부가 답사한 부안면 양돈축사관련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과 함께 축사건립 반대시위를 벌였다.

이날 스님들은 주민들과 함께 석가모니불 정근을 하며 양돈축사 건축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으며, 시위에 동참한 지역주민들 역시 대형 양돈장 신축에 따른 절박한 심정을 호소했다.

고창군의 한 축산위탁영농조합에서 건립을 추진 중인 양돈축사는 총 2만 9784㎡의 대지에 10개동 총 1만1740㎡(약 3551평) 건물을 건축하고, 약 1만두의 돼지를 사육할 예정이었으나 고창군의 허가신청 반려로 행정소송 중에 있다.




고창 선운사와 소요사 스님들이 6월 1일 양돈축사관련 현장을 방문해 반대시위를 벌였다.

이 양돈축사가 들어설 부지는 소요사와 불과 600m 떨어져 있고, 서정주 시인의 미당문화관과는 1,500m가량 떨어진 질마재 인근에 위치한다. 이 때문에 밀물 시에는 악취가 인근 선운사와 고인돌 유적지까지 올라오는 것은 물론 부지 아래 2개의 대형 저수지 수질오염도 우려되고 있다.

시위에 동참한 선운사 스님들은 “양돈축사 건립 반대는 청정지역 환경을 지키는 일로 주민들과 함께 축사 건립 저지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주지법 행정소송 담당 관계자는 현장 방문에 이어 추후 변론기일을 정해 최종 판결하겠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부산 봉축행사 ‘성공적’ 쓰레기 배출 대폭 감소

### 부산불교聯, 봉축 평가회 열어

2018년 부산연등문화제가 높은 시민의식과 헌신적인 봉사로 우중(雨中)에서도 빛났고, 불자들의 신심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부산불교연합회(회장 경선)는 6월 1일 부산진역 협성웨딩뷔페홀에서 ‘2018년부산연등문화제 평가회’를 개최하고 봉사자 및 참가자를 격려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평가회에 앞서 부산불교연합회 사무총장 정산 스님은 “지난해에는 쓰레기 정리에만 6시간이 걸려 어려움이 있었는데 1년 사이 쓰레기가 10배 이상 줄어들어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줬다”고 총평했다.

한편, 이날 제등행렬 출발 시간 및 거리 조정 △장엄등 파손 방지 위한 대책 △참가자 위한 특설 무대 위치 조정 △축제음악회 공연시간 조정 등 건의도 이어졌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친환경 삼베타올선물 SET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3종 세트
27,000원 (배송비 포함)

법회, 환갑, 칠순, 돌잔치, 명절 등 각종 행사, 가족 선물로 아주 좋습니다!



■ 건포, 습포 마사지 특징

10분 정도 마른 수건 또는 젖은 수건으로 손발 끝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둥글게 피부를 마사지 합니다. 외출 후 샤워 전 워밍업으로 건포마사지를 해주면 몸의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보호 및 면역력 향상에도 좋고, 감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삼베샤워타올 (건포마사지)
* 혈액순환 및 피부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 피부의 더러움과 묵은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 지치고 활력 없는 피부에 탄력과 윤기를 부여 합니다.
* 피지분비가 줄어드는 피부에 피지선의 기능을 활발히 해줍니다.
* 환자목욕용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값 15,000원





■ 삼베세안타올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적신 후 얼굴전체를 마사지 하듯 닦아줍니다.
* 특히 코 주변을 닦아주면 피지가 제거됩니다.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헹군 후 닦아줍니다.
값 6,000원





■ 삼베수세미
* 세제없이 식기세척이 가능합니다.
* 항균, 항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과일세척에도 세제없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값 4,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T.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